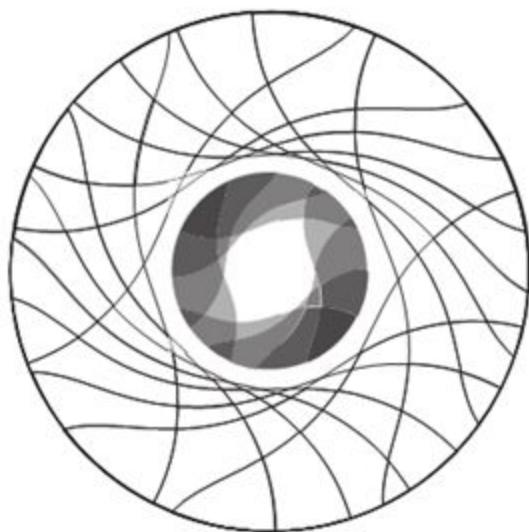


원정연 105-2

코로나 이후의 교단운영 연구 보고서



원기 105년 5월 12일



코로나 이후의 교단운영 연구 보고서

목 차

1. 들어가며	3
2. 코로나19는 무엇인가?	3
2.1. 코로나19 기본정보	3
2.2. 코로나19의 원인	5
2.3. 코로나19의 위험성	5
2.4. 코로나19 전개상황	8
3. 코로나19의 영향	10
3.1.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	10
3.1.1. 국제적 고립주의	10
3.1.2. 비접촉 생활문화	11
3.1.3. 경제위기	11
3.1.4. 정보통신기술 필요성 부각	12
3.1.5. 의식과 행동의 변화	12
3.1.6. 환경파괴 규제 필요성 부각	13
3.1.7. 남북관계	14
3.1.8.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	14
3.2. 코로나19의 교화환경 영향	15
3.2.1. 세대별 요구 차이	15
3.2.2. 원격교화와 원격행정 요구	15
3.2.3. 종교활동 요구 약화	16
3.2.4. 재정적 요구	18
4. 교법적 메시지	19
4.1. 정신개벽과 훈련	19
4.2. 옥심의 절제	20
4.3. 나눔의 실천	20
4.4. 물질의 선용	21
5. 코로나 이후 교단운영	21
5.1. 코로나19 대책위 운영 백서 발간	21
5.2. 교화정체성 확립	24
5.2.1. 교화단 중심 소규모 교화	24

5.2.2. 일상수행의 훈련	25
5.3. 원격 교화	26
5.3.1. 사이버 교화 교육	26
5.3.2. 온라인 교화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	28
5.3.3. 전문실무자 권한 위임	28
5.4. 디지털 행정	28
5.4.1. 사이버 교화 관련 통계 및 제도 정비	28
5.4.2. 개인정보보호 법규 신설 및 전산시스템 정비	28
5.5. 사회참여 교화	29
5.5.1.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구 및 활동	29
5.5.2. 봉공훈련	30
5.5.3. 타종교와 네트워크 형성	30
5.5.4. 북한의 인도적 지원	30
5.6. 영육쌍전	31
6. 나가는 말	32
참고문헌	33
불임. 수위단원 설문 결과	36

1. 들어가며

코로나19가 미중유의 심각한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문명사적 전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세시대를 끝내고 근대시대를 열었던 중세유럽의 흑사병에까지 비견될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를 찾아가고는 있으나, 반복될 수 있는 질병재난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우리 교단은 어떠한 교법적 메시지를 사회에 제시해 주어야 하며, 교단의 운영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답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를 위해 먼저 코로나19에 관한 기초정보는 관련 서적과 논문, 방역당국 제공자료, 관련 세미나와 강의영상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사회적·교단적 변화와 이에 대한 교법적 메시지 및 교단운영에 관해서는 사회와 교단의 언론보도, 관련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한 자료 수집과 아울러 수위단원 설문, 교구와 교당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화상 세미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제들을 먼저 현상/과제와 해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현상/과제에 대응하는 해법을 대응시켜 가며 분석하였으며 연구소 자체 토론을 통해 도출된 추가적인 제안도 함께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의 2장은 코로나19 관련 정보, 3장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사회적·교단적 현상과 과제를 기술했으며 4장 ~ 5장은 3장에서 제시된 과제에 대한 해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코로나19는 무엇인가?

2.1. 코로나19 기본정보

‘코로나19(COVID-19)’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의 줄임말로서 2019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감염원으로 하여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병한 질병에 대한 명칭이다. ‘19’는 2019년에 최초 발병했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19(질병)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의 명칭은 ‘SARS-CoV-2’이나, 일반적으로는 ‘코로나19’를 질병은 물론 바이러스도 지칭하는 명칭으로 흔용하여 쓰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질병에 대한 명칭은 ‘코로나19’, 코로나19의 감염원 바이러스의 명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 일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하기로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서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그 종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최강석, 2020, p.6).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 분류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 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潜伏期	1~14일 (평균 4~7일)
진단 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치료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 단, 국가별·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리	환자 관리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p>백신 없음</p> <p>올바른 손씻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실시 <p>기침 예절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	---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http://ncov.mohw.go.kr/baroView.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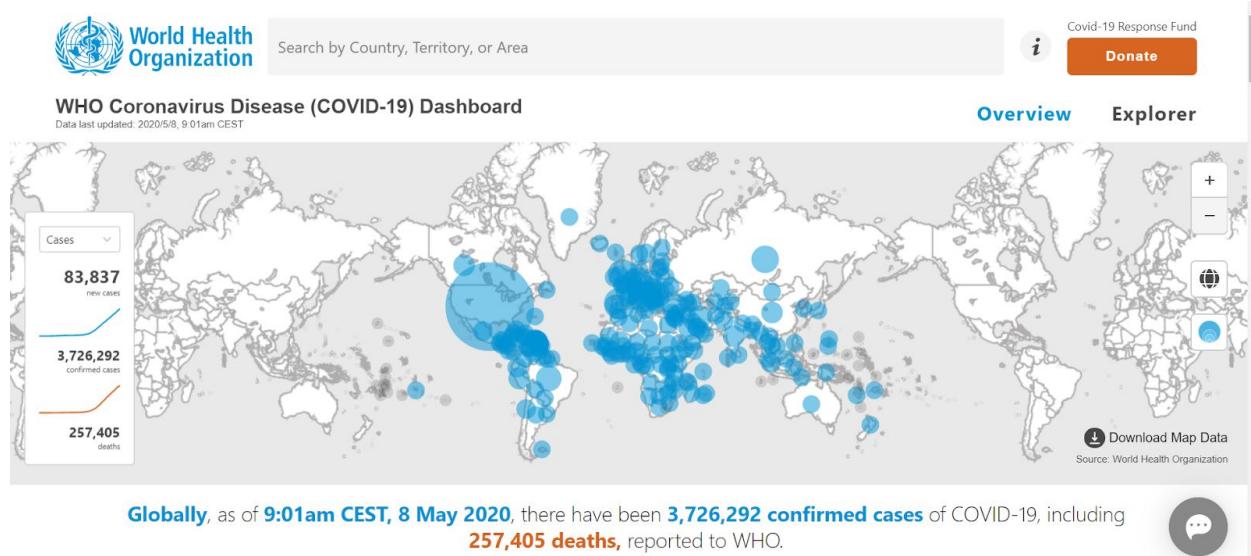
2.2. 코로나19의 원인

인간이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영역을 넓히고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 ‘인체 내부와 외부의 다차원적 시스템 균형이 붕괴’(홍윤철, 2020, p.94)되었고 각종 질병을 낳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19도 그 한 예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숙주로 추정하고 있는 박쥐의 경우, 기존에는 인류와 박쥐가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그 서식지를 인류가 침범해 들어가면서 접촉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질병이 옮아왔을 것이라고 과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최재천, 2020.04.07;홍윤철, 2020). 더욱이 현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질병재난은 바이러스 자체의 적응 및 변화와 아울러 지구기후변화, 생태계파괴, 가축 밀집 사육, 항생제 남용, 도시화와 인구밀집, 글로벌화와 같은 위생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안광석, 2020.05.08).

2.3. 코로나19의 위험성

코로나19가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위험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높은 감염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율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에 있어 감염율과 치명율은 반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율은 높은 반면 감염율이 낮고, 인플루엔자에 의한 독감의 경우 감염율은 높은 반면 치명율이 낮다. 치명율이 높은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로 옮아가기 전에 숙주가 죽기 때문에 감염율이 낮지 않은 반면, 치명율이 낮은 바이러스는 숙주가 활동하면서 다른 숙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염율이 높다. 2020.05.07 현재 코로나19는 215개국, 모든 대륙에 걸쳐 발병했으며 확진자 3,679,499명, 사망자는 254,299로서 현재까지 치명율은 6.9%이다

(WHO 홈페이지, 2020.05.08). 다음 그래프는 2020년 5월 8일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수 분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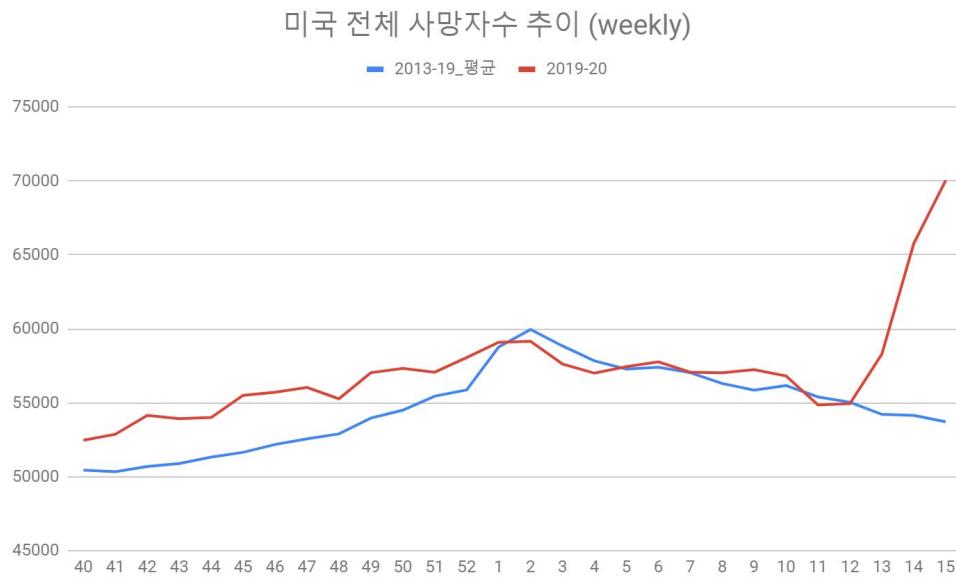


[코로나19 세계 현황. 2020.05.08 현재. 자료제공: 세계보건기구]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 결과 확진자는 10,822명, 사망자는 256명으로서 치명율은 2.7%이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2020.05.08). 이 두 치명율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의 치명율은 아직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보여지며 각 나라별 방역과 의료역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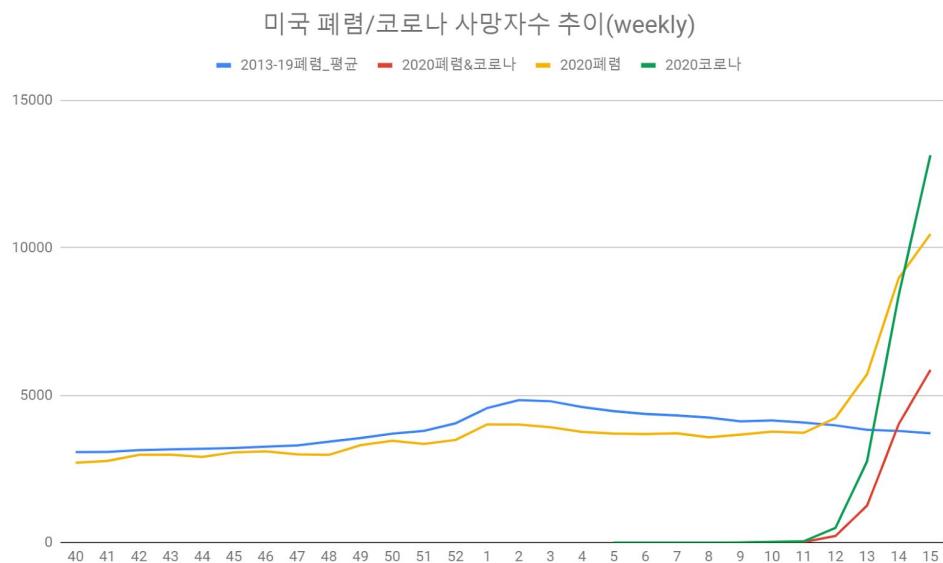
지금까지의 통계로 볼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의 경우 0.1% 미만의 치명율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는 그보다는 수십배 높은 치명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2020.02.18). 일부 의학계에서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다른 바이러스 감염병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메디게이트뉴스, 2020.02.01), 현재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의료인도 일부 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낮게 보는 의료인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사망할 확률이 높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이미 있던 사람들이며, 따라서 전체 사망자수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 사망자수 추이 그래프를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¹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주차수(weekly number)를 의미하는데 빨간선으로 나타낸 올해 미국의 전체 사망자수가 파란선으로 나타낸 예년 사망자수와 비교해 볼 때 12주차(3월 셋째 주)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¹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전체 사망자수 통계가 보고되지 않아 미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살펴 보았음.



[자료제공: 미국질병통제센터]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로 미국의 폐렴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를 들 수 있다.



[자료제공: 미국질병통제센터]

위 그림에서 파란선은 예년 폐렴 사망자수 추이이며 노란색선은 올해 폐렴 사망자수이다. 역시 12주차 이후로 폐렴 사망자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빨간선은 코로나19 확진자 폐렴 사망자수로서 노란색 선과 평행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증가한

폐렴사망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녹색선은 빨간선보다 보다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폐렴외에 다른 기저질환과 복합되어 사망한 사람도 많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코로나19가 독감과 비슷한,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은 질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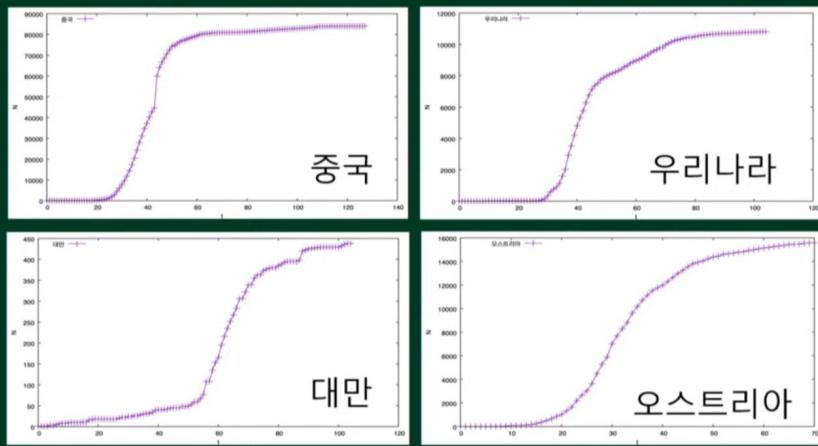
2.4. 코로나19 전개상황

<코로나19 주요일자>

- 2019.12.12 중국 우한서 원인불명 환자 첫 발생
- 2020.1.09 우한 위건위, 첫 사망자 발표 및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표
- 2020.1.20 한국서 첫 환자 확진
- 2020.1.21~30 미국·유럽 등 전세계 확진자 발생
- 2020.1.23 중국, 코로나19 진원지 우한 전격 봉쇄
- 2020.1.27 한국정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 2020.1.29 중국 전역에서 확진 발생
- 2020.1.30 WHO,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
- 2020.2.19 대구 신천지예수교회, 대량 감염환자 발생
- 2020.2.20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한국인 첫 사망자 발생
- 2020.2.23 한국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 2020.3.11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

다음 그림은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된 중국, 한국, 대만, 오스트리아의 확진자 수 추이를 각각 보여 주고 있다. 전형적인 S자 커브를 그리며 그래프 윗부분이 납작해져 있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 (20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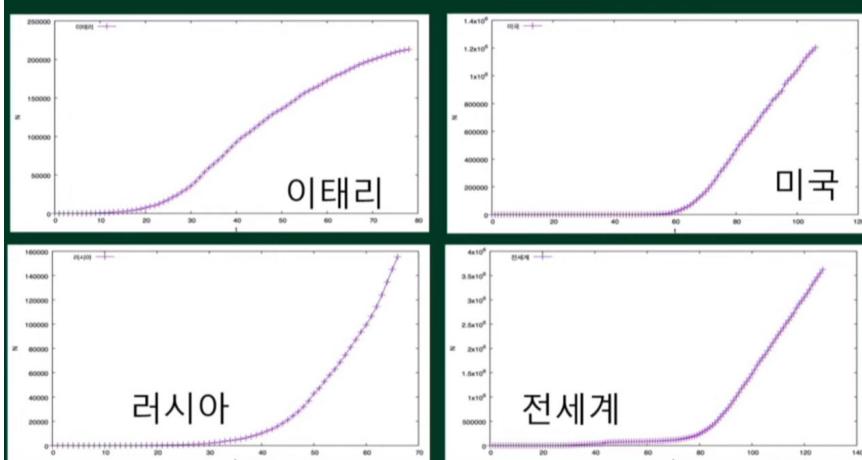


- 확진자수 증가가 멈춘 나라는 전형적인 S자 커브.
- 커브의 구체적인 모양은 나라마다 다름.

[출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Online-Conference]

반면,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나라에서는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위로 휘어져 올라가는 곡선의 형태로 볼 때 더 위험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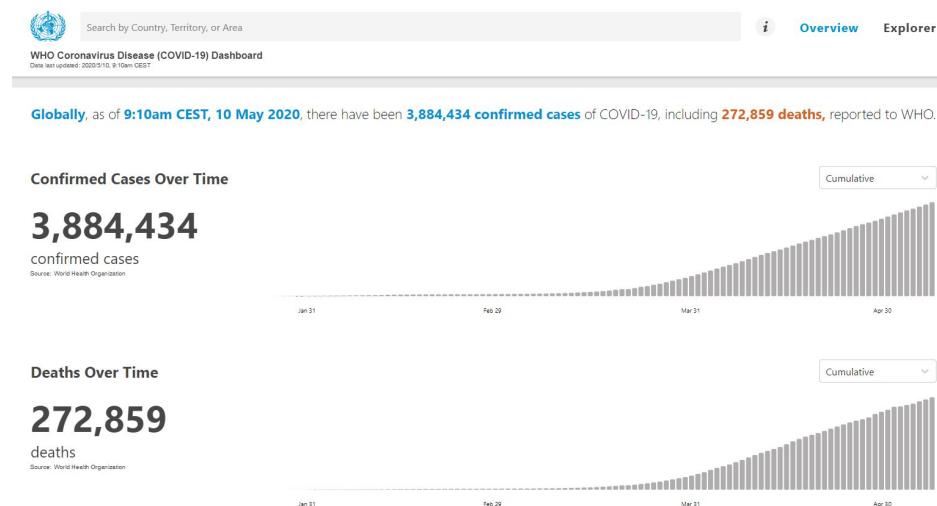
코로나19의 감염확산 (2019.5.6)



-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개략적인 현재 상황 파악 가능.
- Data tells us a story.

[출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Online-Conference]

아래 그래프는 전세계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통해볼 때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확산세가 지속되는 추이인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세계 현황. 2020.05.08 현재. 출처: 세계보건기구]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에 따라 정부는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대부분 코로나19 면역이 없고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2차 유행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KBS뉴스, 2020.04.22). 다만, 전 세계 제약회사 연구자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 가량 소요되는 개발과정이 이번에는 빠르면 6-8개월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도 있다(Kim, 2020.05.08, 유튜브영상 44:55).

3. 코로나19의 영향

이 장에서는 코로나19가 사회와 교화환경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3.1.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중세시대의 종말을 촉진시켰던 흑사병에 비견(홍기빈, 2020.04.26; 홍석현, 2020.05.08)될 정도로 코로나19는 현대문명을 바꾸게 될 것이고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간 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틀 안에서 경제회복을 이야기 하는 등 그 이전의 일상으로 많은 부분이 돌아갈 수도 있으나, 2차 대유행이 도래하면 변화는 불가피 할 것이라 내다 보았다

(법륜스님, 2020.04.25). 흥기빈(2020.04.26) 소장은 단순 미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미래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잘 정리하여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교단도 그러한 대비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코로나19로 어떻게 사회가 변화할지 대체적인 주제들을 정해 살펴보고자 한다.

3.1.1. 국제적 고립주의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두고 전세계가 '성곽국가'가 되어 국가간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경향신문, 2020.04.05). 각국이 자국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여행과 무역 등의 국제간 경제활동도 중단되어 신자유주의 무역질서 하에 세워졌던 전 지구적 산업간 가치사슬이 무너지게 되었다(흥기빈, 노컷뉴스 2020.04.21). 특히 방역과 의료에 필요한 마스크, 진단키트, 호흡기 등은 갑작스런 수요증가로 인하여 국제간에 수출입될 여지가 별로 없게 되었다. 다른 공급처가 있어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식량의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쌀 수출규제 정책을 일시적으로 실시하여 불안감이 커지기도 하였으며 국가간 식량 무기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었다. 현재 여러 나라들이 다시 국경을 개방하고 국제간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방침을 내놓고는 있다. 그러나 값싼 인건비를 찾아 해외에 공장을 지었던 다국적 기업들 입장에서 국경폐쇄로 인한 해외 경제활동의 중단은 해외 분야에 대한 위험으로 인식되어 해외에 더이상 투자하지 않고 자국으로 산업투자를 돌리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펴고 있다(매일경제, 2020.04.29). 이에 따라 각 나라마다 산업의 자립구조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위로도 나타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유럽국가와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인종차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연합뉴스, 2020.04.27). 이민자에게 이러한 차별과 배척이 지속되면 상당 부분 역이민이 생길 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1.2. 비접촉 생활문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직장과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장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택근무 도입으로 이어졌다. 처음엔 대기업 위주로 도입되었으나 중소기업도 따라서 도입하는 추세가 되었고 3월 중순 약 10만명이 재택근무한다는 통계도 보고 되었다(매일경제, 2020.03.16). 일과 생활 경계 무너져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기업의 경우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출퇴근

이동이 없어져 삶의 질도 높아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재택근무 실험에서 업무효율성이 확인되어 코로나19 이후에도 재계에서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동아일보, 2020.04.07).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육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등교 개학이 3차례 연기된 끝에 개학을 더 미루기 힘들어 교육부에서는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개학 및 수업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4월 20일부터는 초·중·고등학생 530만여명 전원이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다(중앙일보, 2020.04.19).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을 늘어나게 되어 재택근무하는 부부간의 갈등, 아이와 24시간 같이 있어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늘어나게 된 것도 보고되고 있다. 취미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극장대신 집에서 넷플릭스를 즐겨 보게 되었고, 회식문화가 혼밥으로 바뀌었으며, 배달주문 소비가 늘어났다. 거리두기를 덜 염려해도 되는 공원과 같은 큰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으며, 민폐가 될까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행업과 음식점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더 심하게 입었으며, 증가하는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감의 심리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었다(정혜신, 2020.04.29).

3.1.3. 경제위기

코로나19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실천하면서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사람간의 접촉기피로 인한 소비 위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져와 급여 삭감과 실업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20.04.05). 이러한 경제충격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기업신용등급이 급락했으며,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출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봉쇄정책을 더욱 강하게 시행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더욱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1929년 대공황보다 여파가 클 수 있다(장하준, 2020.04.10)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경제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 지원금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3.1.4. 정보통신기술 필요성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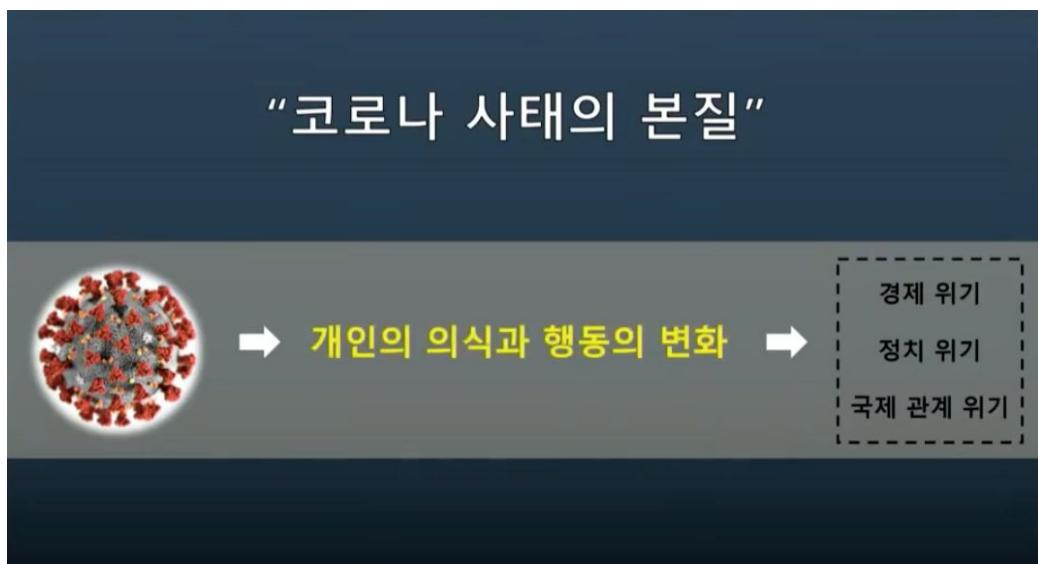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먼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탄탄한 인터넷 통신망, CCTV, 카드결제시스템, 인공지능, 스마트폰 앱개발 등의 정보통신기술은 빠른 정보 제공과 환자 진단, 치료제 개발 연구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이코노텔링, 2020.03.12). 특히 확진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그들의 동선을 추적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다. 다른 나라도 뒤늦게나마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만큼 성공적이지 못한 데에는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뒷받침이 못 미쳤던 탓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도한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그리고 원격 판매에서도 큰 봇을 해냈다.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 초기 생필품과 화장지 등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우려가 없었던 데에는 원격판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탓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으며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크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국정연설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고용충격과 수출 감소 등의 경제위기 또한 극복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20.05.10).

3.1.5. 의식과 행동의 변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최인철(2020.05.05)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인들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소비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심리·행동적 변화가 사회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Online-Conference]

김경일(2020.05.06) 교수는 비대면이 일상화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남과의 비교가 줄어들고 스스로 느끼는 심미적 만족감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 보았다. 사람들의 욕구 다양해지고 세밀해질 것이며 이러한 심미적 만족감 발달은 남과의 비교과정에서 욕망을 끊임없이 발달시키던 패턴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얻게 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보았다(김경일, 2020.05.06). 개인들의 행복의 기준이 이러한 방향으로 변할 때 기업도 그러한 개인 소비자들의 패턴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던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게 도와줄 희망의 단서라 여겨진다.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타국에 대한 개방성은 공존하려는 자세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교훈 역시 주었다 (김경일, 2020.04.30).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 자세를 취하고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해 사재기를 하는 것보다 외국인을 조심스레 수용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지역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사회를 위생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해외언론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으며 세계인들의 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1.6. 환경파괴 규제 필요성 부각

사회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현 사태의 생태학적 원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코로나가 인간이 생태계를 무시한 데 대한 자연의 대응일 수 있다고 설파하였다 (한국일보, 2020.04.09). 또한 흥석현 회장은 지난 5월 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현 코로나 사태를 200만년 역사의 인간이 30억년된 바이러스의 영토를 파괴한 결과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숙주를 인간으로 바꾼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재앙은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흥석현, 2020.05.08). 원불교 수위단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앞에 언급한 요인 외에 교법적인 해석으로 ‘인간의 탐진치’, ‘사은에 대한 배은’, ‘인간의 탐욕’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을 꼽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현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원인이 인류가 물질적 욕망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생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와 제한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지만(흥기빈, 2020.04.21),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없을 때는 이를 촉구하는 전지구적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3.1.7. 남북관계

북한도 코로나19의 예외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공표하기는 하지만(동아일보, 2020.04.09), 격리 해제자수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 볼 때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했다(뉴스공장, 2020.04.20). 유엔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무역대상국의 외국인까지 출입국을 막는 봉쇄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 무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매일경제, 2020.04.12).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부의장은 인도적 차원과 함께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진단키트와 산소호흡기, 마스크 등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나아가 개성공단 재개등의 경제협력도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뉴스공장, 2020.04.20).

3.1.8.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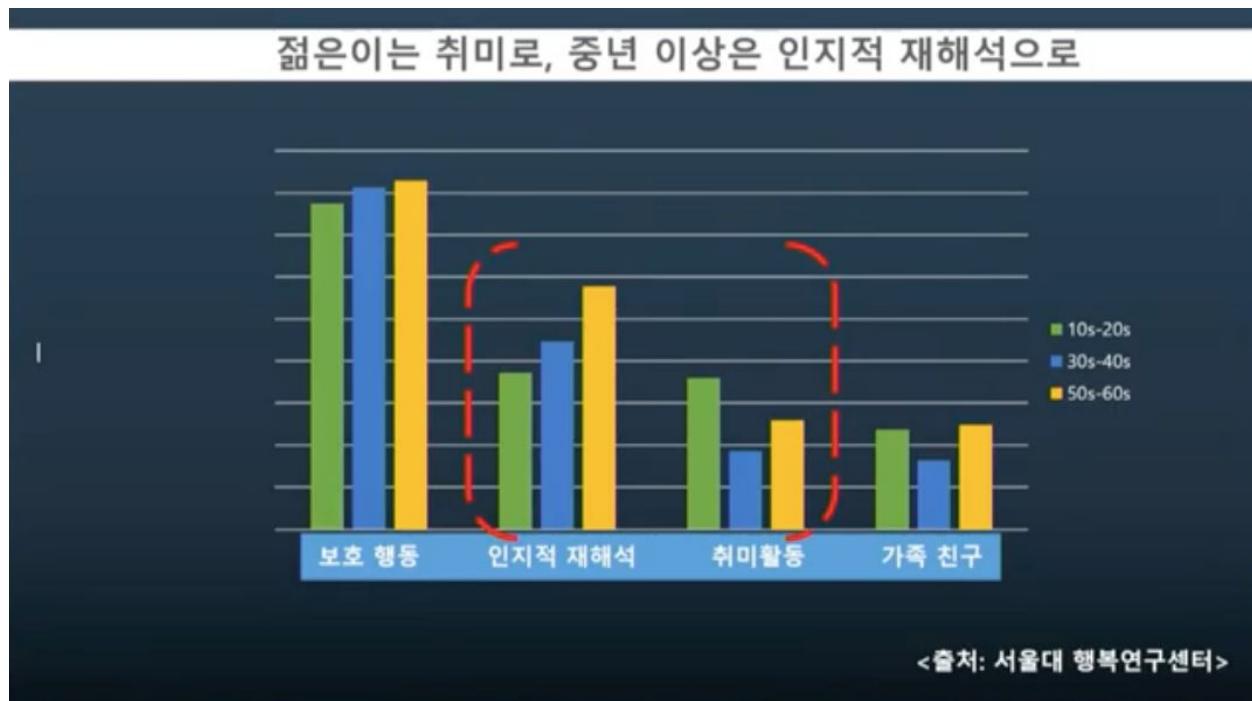
이상으로 코로나19가 현재까지 사회에 끼친 영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 보았다. 언급하였다시피 전에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큰 충격이었고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서 종합하여 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사회적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의 재난 대응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 왔던 선진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대종사님께서 예견하셨던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교단 역시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 보다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때라 여겨진다.

3.2. 코로나19의 교화환경 영향

3.2.1. 세대별 요구 차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인철, 2020.05.08). 뒤에 제시하는 그림은 코로나 사태 기간의 스트레스에 젊은 세대는 취미로, 중년 이상은 인지적 재해석으로 대처한다는 세대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지적 재해석이란 코로나19가 초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보려 하며, 현 사태를 큰 문제가 아니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의식적 관점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림의 제목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취미로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웃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10대와 20대를 나타내는 녹색 막대그래프가 인지적 재해석과 취미에서 비슷한 높이인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년 이상은 취미보다는 인지적 재해석 전략을 택하는 반면, 청소년은 둘을 비슷한 수준으로 병행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교화에 있어 재미의 측면과 교육/훈련의 측면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출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Online-Conference]

3.2.2. 원격교화와 원격행정 요구

코로나19는 우리의 교화 패턴에도 변화를 요구하였다. 기존에 교화는 교당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하는 것이라는 습관적 의식에 강력한 제재가 걸린 것이다. 아래는 한수위단원의 설문응답 내용이다.

지역위주의 그룹화(동네 교당)는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동네와 지역을 벗어나서 직접 대중에게 다가서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법륜 스님이 유튜브나 순회강연으로 대중을 휘어잡고 있는 것을 볼때 지역 교당을 초월해야 한다고 느낀 것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 절실하게 체감된 것입니다 (수위단원 설문, 2020.05.06).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영상에 일찌기 관심을 가지고 준비가 있었던 교무들은 직접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였으나(예. 안안교당, 강남지구), 대부분은 관심이 있어도 그러한 여력이 되지 못하였다(H교당 주임교무 인터뷰, 2020.04.26). 이러한 디지털 원격교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화훈련부에서는 밴드와 카카오톡에서 실시간 법회보는 법(2020.04.04)과 온라인 유튜브 특별교육(2020.04.14)을 제공하였으며, 온라인 교육 영상을 공유해달라는 원티스 게시판의 댓글을 통해 볼 때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원격교화와 아울러 원격행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3월에 미국 워싱턴 교당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총부 TF팀과 미국 교무들의 미국자치교헌 합동 세미나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제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 세미나로 전환된 바 있다. 화상 국제회의가 처음으로 열린 관계로 미국측의 통신장비와 진행 방식에 미비점이 있어 회의가 원활하지 못한 순간들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 능력들을 포함하여 교단내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을 부각시켜주는 사례였다.

3.2.3. 종교활동 요구 약화

아래 그래프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최인철 교수 연구팀이 2017년과 이번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일상 활동이 행복을 유발하는 정도에 대한 비교 연구조사 결과이다.



[출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Online-Conference]

위 그래프를 보면 먹기와 운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종교활동의 영향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종교의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상을 종교계에서도 이미 감지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가톨릭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종교의식에 대한 요구 약화에 대한 우려가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지난 그동안 주일미사를 빠지면 대죄로 여겼지만. 지금은 벌써 두 달째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내고 보면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론 마음이 중요하지 몸으로 참여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도 하는 것 같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기존처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고집하는 방식이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제대로 고민하지 않으면, 천주교는 급격하게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겨레신문, 2020.05.07)

이는 비단 천주교를 비롯한 다른 종단만의 문제는 아니며,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법회의식에 대한 요구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회를 보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잠이 오지 않았다. '법회를 안봐도 되는구나. 오히려 가족과 함께 주말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구나' 하고 느끼신 교도님들이 있다는 말이었다. 역설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안와도 되는데 오신 분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 이 고민이 깊어진 것 같다. (M교당 주임교부, 2020.04.26 인터뷰)

우리 교법에는 이미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정전, 영육쌍전법)"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의 교법정신으로 돌아가 교도들에게 법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도록 도움을 주는 법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판단된다.

3.2.4. 재정적 요구

코로나19는 종교계 일반의 재정 악화를 가져왔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이 소개한 지난 4월 1일 3개종단 대표 좌담회에서 코로나19의 각 종단 경제적 영향에 관한 대화 내용이다 (한겨레신문, 2020.05.07).

<불교>

“신도들은 조용히 지내지만 종단에선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작은 말사나 학교 등 기관에서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미 사찰 직원인 종무원, 학교 등 기관의 청소노동자, 임시직 등을 내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유승무 교수)

<천주교>

“성당미사가 멈추면서 직원 월급을 주기조차 어려워져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만약 이것이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이 되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다. 성당은 크게 지어놓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사제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박문수 위원장)

<기독교>

“사실 피치 못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 아마 개신교회의 70~80%는 세 들어 있을거다. 주위 동료 목사들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이상철 목사)

위와 같은 상황은 우리 교단도 예외는 아니다. 총부 사업기관 원장의 경우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0.9%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교화현장으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H교당 주임교무 인터뷰, 2020.04.26). 이를 고려하여 총부에서는 각 부서에서 조정 가능한 항목의 지출 예산을 20% 삭감하였고, 이러한 재정위기 극복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4월 총부과장급 이상 교무님들은 업무추진비를, 부장급 이상 교무님들은 업무추진비와 상여금을 총부에 기부한 바 있다.

교단의 재정위기는 비단 주말 법회를 열지 못해 오는 것만은 아니다. 교단의 헌공금이 재가 교도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실업 문제가 재가교도들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긴축 재정과 함께 재가교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고려하여 교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4. 교법적 메시지

코로나 재난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위기감이 고조된던 시기에 교단에서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내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교단내 구성원들로부터 접하였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신천지 종교인과 일부 개신교 교회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종교집회 일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로서 종교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시기였다.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통해 이 사태를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재난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원불교가 존재하는 목적을 보다 분명히 되돌아보고 병맥이 심화되어 온 사회에 문명사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전환의 방법은 우리의 교법실천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와 관련해 수위단원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교단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합, 일반 대중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주제를 잡아 서술해 보았다.

4.1. 정신개벽과 훈련

원불교는 과거 정적인 선천시대에서 물질이 개벽되는 동적인 후천시대로 접어들면서 태어난 종교이다. 불교와 원불교 공히 인간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두고 이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쓰는 점에서는 같다 하겠으나 산업혁명 이전의 정적인 시대에 중생들이 겪는 고통의 양상과 물질개벽의 시대에 전개되는 고통 양상은 사뭇 다르다. 물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이것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회시스템을 그대로 쫓아가기만 하게 될 때 그에 비례하여 인류가 겪게 될 고통도 한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코로나 사태는 물질개벽의 시대에 정신의 개벽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세계대전에 비유하기도 한다(빌게이츠, 2020.04.23). 인류공동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난리도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모두 인간의 마음난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대종경 수행품 58장).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군대를 훈련시키듯, 우리인류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대재난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훈련이 아니요,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훈련이어야 한다. 먼저, 나와 내 가족, 내 나라만을 위하려는 분별심과 차별심을 넘어 모두 존재가 하나로 이어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진리에 대한 자각이 먼저 필요한 때이다. 나아가 개인의 습관과 사회의 관습을 넘어,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은혜를 나누며 공존의 가치에 바탕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인류는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서로서로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에서 큰 질병재난과 전쟁이 인간 사회의 큰 틀을 바꿔 왔듯이, 코로나 재난도 우리 사회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핵심이 되어야 할 뉴노멀은 생활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로써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훈련이라야 할 것이며, 그 내용으로, 욕심의 절제, 나눔의 실천, 물질의 선용을 제안한다.

4.2. 욕심의 절제

인간이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영역을 넓히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다차원적 시스템 균형이 붕괴되었고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초래하게 되었다. 기후이변은 물론이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재난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현듯 덮치나 그 근본 원인을 파헤쳐 들어가면 인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해 행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분별한 자연에 대한 이용과 착취가 더 이상 가능해 지지 않았음을 이번 코로나19 질병재난은 보여주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며 인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무한한 욕망을 인정해 오던 기준의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여 우리 인류는 욕망에 대한 절제를 몸에 익혀가야만 한다. 이것이 새로운 노멀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적 차원에서는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공동 사업과 정책을 국제적 연대 하에 펴 나갈 것을 제안한다.

4.3. 나눔의 실천

코로나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전 세계 인류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인류가 한 포태의 동포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는 질병의 감염과 같이 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지만 자리이타의 실천으로 서로 이로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 분기점은 존재란 은혜의 관계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보은하는 태도를 갖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재난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대응해 온 모습은 동포피은의 조목 중 첫번째 조목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해 주었다.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기존 사례에 대한 연구에 바탕하여 재난 대응의 지침을 미리 마련하였으며, 중심을 잡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재난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국민들의 신뢰와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많은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역감염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감염자의 치료와 방역, 그외 지원활동을 혼신의 힘을 다해 진행해 주었으며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지난 4월 30일에는 국내 확진환자

발생 70여일만에 국내 확진자 0명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공적 사례는 확진자의 급증과 생활물품 사재기, 의료용품의 부족 등을 겪은 외국의 예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국의 성공에만 그치지 않고 요청하는 외국에 방역정보와 의료물자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자세는 부상하는 강자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재난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국제적 국내적 나눔의 정신은 조선이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되리라 하신 대종사님의 예언이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단 차원만이 아니라 교도 개인도 국한을 점차 넓혀 교당, 지역사회, 국가, 세계 모두를 위한 공도자가 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 있어서도 교당 법회에 출석하는 교도를 위한 직접교화 위주의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교육 자선 모두를 아우르는 이웃과 국가와 세계를 위한 봉공훈련을 통한 교화의 방향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4.4. 물질의 선용

이번 코로나 재난의 대응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감염자 동선추적, 앱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서 방역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또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격리 또는 거리두기의 지침은 교육계와 산업계에서 원격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4차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이언스타임즈, 2020.04.24).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서 교화환경도 디지털 과학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법회운영 중단 기간 중 교화현장에서도 밴드, 카카오톡, 유튜브,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이 원격교화를 위해 산발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교화환경의 변화는 교화방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여 왔으나 교단의 기술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코로나 이후의 시기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는 개벽된 물질의 적극적 활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교단과 구성원들 스스로도 시대를 따라 발전해 가는 과학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 보다 사회에 보다 호소력이 있게 다가갈 수 것이다.

물질 선용의 다른 측면은 과학기술 활용의 분별있는 통제이다. 이번 재난사태에서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감염자 동선추적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인권침해 논쟁을 비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에서는 감염자의 동선추적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문제는, 물론 기술적 어려움의 측면도 있긴 하였으나, 개인의 자유인권의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번 재난에서 방역에 대한 대응 수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의 도입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의 성숙이 요구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라리, 2020). 우리나라의 정부의 분별력 있는 활용과 대중과의 적극적 소통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으나 과학기술의 활용과 인권보호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정부를 통제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교단 내적으로도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적절한 통제하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교화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5. 코로나 이후 교단운영

5.1. 코로나19 대책위 운영 백서 발간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의 교훈을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백서에 담아 준비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이재열, 2020.05.08).



[출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Online-Conference]

우리 교단도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후속조치TF를 구성하여 이번 코로나19대책위 운영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 그에 바탕해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수위단원 설문; K교무 인터뷰, 2020.04.17; J교무 인터뷰, 2020.04.21). 아래는 한 총부 교무와의 인터뷰 발췌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사스, 메르스 거치면서 만들어진 유비무환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보완해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우리 총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안건, 비슷한 안건이 주기적으로 계속 논의되는데 그 이유는 해결이 안되니까. 결론은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전문적 연구, 집중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유비무환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아래는 원불교 '코로나19' 대책 백서발간시 참고할 수 있는 '2015 메르스 백서'의 본책 목차내용이다 (보건복지부, 2016).

요약

1. 서론
2. 메르스 특성과 국제동향
3. 정부의 메르스 대응 과정
 - 3.1. 메르스 대응 조직과 운영 체계
 - 3.2. 검역
 - 3.3. 역학조사
 - 3.4. 진단검사
 - 3.5. 위기소통
 - 3.6. 접촉자 관리
 - 3.7. 집중관리병원
 - 3.8. 격리병상 및 자원 관리
 - 3.9. 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진료
 - 3.10. 지원과 보상
 - 3.11. 국제협력
 - 3.12. 메르스 대응 예산
4. 메르스 대응 평가

- 4.1. 중앙 메르스 대응 조직과 협력 체계
 - 4.2. 메르스 환자 발견과 역학조사
 - 4.3. 메르스 진단검사 및 격리병상
 - 4.4. 위기소통과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 공개
 - 4.5. 집중관리병원 방역조치
 - 4.6. 지역사회의 메르스 대응
 - 4.7. 메르스 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진료
 - 4.8. 사후 지원과 보상
 - 4.9. 평가와 후속조치
5. 메르스로부터 얻은 교훈과 제언
- 신종감염병 대응 행동요령
- 참고문헌·용어정리
- 표 목차
- 그림 목차

5.2. 교화정체성 확립

코로나19는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다가오는 현실에 대응하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 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근본을 바루는 것이 필요하다(수위단원 설문, 2020.05.06).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교단이 근본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미래를 원불교의 비전에 맞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원불교의 비전은 일체중생의 행복이다. 그러나 이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기에 진리에 대한 자각과 훈련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다. 인식적 변화를 통한 진리의 자각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것을 체득하는 것은 일상의 경계 속에서 부단한 단련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신의 자력과 스승의 타력을 통해 함께 공들여 갈 때 가능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스승이 수 많은 제자들에게 공을 들일 수 없기에 대종사께서는 교화단법으로 이를 이루고자 하셨다. 이러한 의미로 교화단과 훈련은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화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5.2.1. 교회단 중심 소규모 교회

교회단 중심 소규모 교회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시에 취할 수 있는 교회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수위단원의 설문 응답 중 하나이다.

앞으로의 종교 트렌드는 대형 집회가 아닌 상시로 열리는 개인, 혹은 소그룹 모임이 될 것 같다. (온·오프라인) 이것이 트렌드가 되고, 원불교로서는 다른 종교에 비해 교리상 상시로 열려있는 소그룹 법회, 모임 등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 소규모 교당의 경우에도 법회에 모이는 교도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문답감정, 교회단 모임, 상시응용 주의사항 감정 등을 하여 교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힌트를 이번 기회에 얻게 되었다. (수위단원 설문, 2020.05.06)

뿐만 아니라 교회단 중심 소규모 교회는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회 방법이라 여겨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조직보다는 소규모 조직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려면 큰 투자가 필요해 큰 위험을 수반하는 반면, 소규모 조직은 작은 투자로도 운영할 수 있으면서도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대중법회는 이러한 다양하고 세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소규모 조직 교회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소규모 조직을 활용하는 교회방법인 교회단법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5.2.2. 일상수행의 훈련

본 보고서의 교회환경의 변화를 서술한 부분에서 교법의 생활화 요구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코로나 사태기간 동안 교단에서 시행한 대중법회의 종단은 교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례적 법회의식에 대한 습관적 의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는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원불교 본연의 모토는 교법(불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이다. 일상수행의 요법이 제정된 이유도 교리를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본연의 교화목적을 이번 기회에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 제시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자료그림에서 종교활동 외의 일상활동을 살펴보자.

일상 활동이 행복을 유발하는 정도 (30-40대): 2017 VS. 2020



[출처: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Online-Conference]

이 중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행복을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활동들, 예를 들면, ‘업무/공부/수업’, ‘출퇴근/이동’, ‘휴식/아무것도 안하기’이다. 원불교는 행주좌와 어룩동정간에 현실적 고락을 초월하여 영원한 낙을 추구(정전, 고락에 대한 법문)하는 종교로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화환경의 변화는 법회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활동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교도와 사회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의 교법을 통해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5.3. 원격 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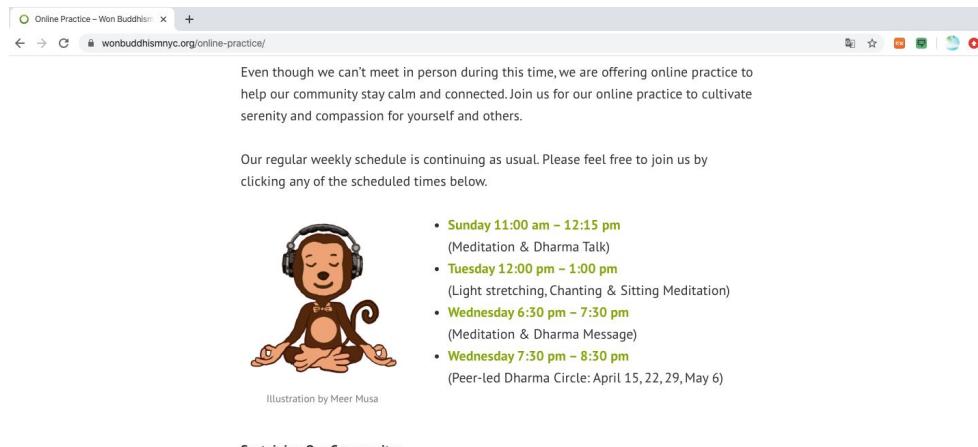
5.3.1. 사이버 교화 교육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교화현장에서 원격교화에 대한 요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총부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현장에 맞는 교육이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 한 가지 이번 코로나 사태 기간동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해외에서의 원격교화 활동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방송영상과 유튜브 같은 일방적 소통방식의 원격교화가 시도되었던 반면, 미국에서는 쌍방향의 화상법회가 이루어졌다. 맨하탄 교당 교무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교당 주임교무님이 설법자로 초대되어 법회를 보았다고 전해진다. 법회의 다양한 운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

유튜브와 같은 일방적 영상을 통한 법회의 한계는 진행자와 참여자 사이의 교감 부족에서 오는 제한된 전달력이다. 반면 쌍방향 화상회의는 이러한 교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혼선과 산만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행자의 많은 준비와 참여자의 익숙함이 필요하다.

맨하탄 교당의 시도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보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맨하탄 교당에서 제작한 온라인법회 일정과 참여 방법,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화면이다.

<맨하탄 교당의 온라인 법회 안내 페이지>



Even though we can't meet in person during this time, we are offering online practice to help our community stay calm and connected. Join us for our online practice to cultivate serenity and compassion for yourself and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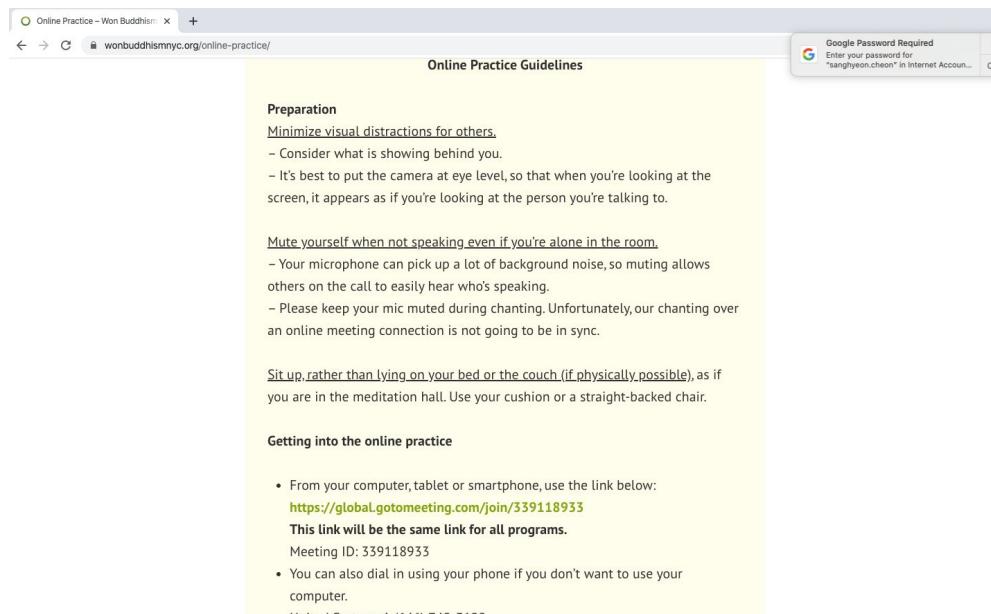
Our regular weekly schedule is continuing as usual. Please feel free to join us by clicking any of the scheduled times below.

- **Sunday 11:00 am – 12:15 pm**
(Meditation & Dharma Talk)
- **Tuesday 12:00 pm – 1:00 pm**
(Light stretching, Chanting & Sitting Meditation)
- **Wednesday 6:30 pm – 7:30 pm**
(Meditation & Dharma Message)
- **Wednesday 7:30 pm – 8:30 pm**
(Peer-led Dharma Circle: April 15, 22, 29, May 6)

Illustration by Meer Musa

Sustaining Our Community:

We are able to stay connected and to continue to support one another in this difficult time through our online practice. If you find yourself experiencing financial challenges, please know that all of our programs are available without charge, and we welcome your presence. If you are fortunate enough to continue making an income, please consider offering an [online donation HERE](#). Any amount coming from your heart is helpful and greatly appreciated.



Online Practice Guidelines

Preparation

Minimize visual distractions for others.

- Consider what is showing behind you.
- It's best to put the camera at eye level, so that when you're looking at the screen, it appears as if you're looking at the person you're talking to.

Mute yourself when not speaking even if you're alone in the room.

- Your microphone can pick up a lot of background noise, so muting allows others on the call to easily hear who's speaking.
- Please keep your mic muted during chanting. Unfortunately, our chanting over an online meeting connection is not going to be in sync.

Sit up, rather than lying on your bed or the couch (if physically possible), as if you are in the meditation hall. Use your cushion or a straight-backed chair.

Getting into the online practice

- From your computer, tablet or smartphone, use the link below:
<https://global.gotomeeting.com/join/339118933>
This link will be the same link for all programs.
Meeting ID: 339118933
- You can also dial in using your phone if you don't want to use your computer.
United States: +1 (646) 749-3122

[출처: 원불교 맨하탄교당 <https://wonbuddhismnyc.org/online-practice/>]

총부에서는 개별 교당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원격교화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진행방법 등을 문서 또는 영상을 공유하여 확산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역량개발 교육의 커리큘럼에도 원격교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5.3.2. 온라인 교화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교화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교화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총부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교화 컨텐츠를 개발하여 교화현장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재가 출가 교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교화훈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도 필요하다. 현대인에게 필수품은 스마트폰이며 거의 모든 개인들이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이를 생활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스마트폰 어플은 그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교화훈련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시일기점검 어플 개발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5.3.3. 전문실무자 권한 위임

이번 코로나 재난에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정은경 박사와 같은 전문 의료행정가에게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겨 방역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위임한 데 있었다. 이는 지자본위가 사회적으로 잘 실천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총부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해 줄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원불교에서는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와 전통이 있으나 미래의 교화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과감한 지원과 권한 위임을 제안한다. 신뢰에 바탕하여 권한이 위임될 때 실무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5.4. 디지털 행정

5.4.1. 사이버 교화 관련 통계 및 제도 정비

코로나 재난 대응 기간 동안 온라인 디지털 교화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역량이 갖춰진 교화현장에서는 유튜브 녹화영상 및 스트리밍 법회, 화상법회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예. 안암교당 교리공부 유튜브영상, 강남지구 청년 톡톡법회 유튜브 스트리밍, 맨하탄 교당 화상 법회). 반면 현재 교정통계에서는 오프라인 법회출석만을 교화활동으로 인정하여 집계하고 있다. 사이버 교화 활동의 측정과 통계는 사이버 교화

동기부여의 취지와 함께 교화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확보에 그 의의가 있다. 온라인 교화활동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커져 가는 이 시기에 원티스 행정과 교정통계도 이를 반영함은 물론 이에 대한 타당한 교화성과인정을 비롯한 제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5.4.2. 개인정보보호 법규 신설 및 전산시스템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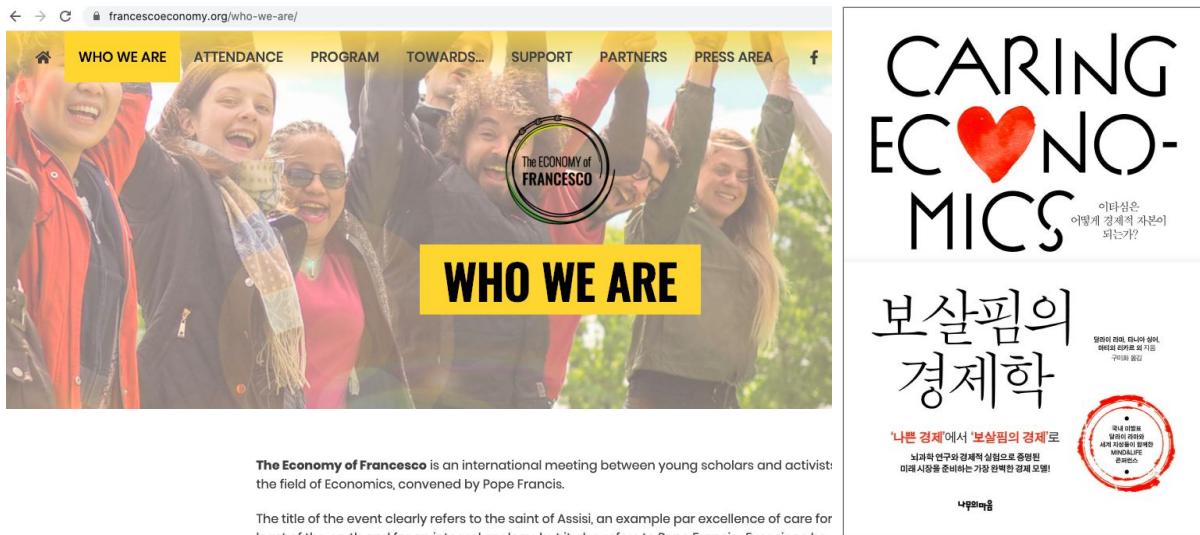
디지털 교화는 4차산업혁명과 같은 과학문명의 결실을 선용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물질의 선용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활용이고 둘은 적절한 통제이다. 이 둘은 교화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가야 하며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활용만 강조할 경우 통제가 되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통제만을 강조할 경우 활용이 되지 않아 발전을 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리이다.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큰 축의 하나는 빅데이터이다. 교단 구성원의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교화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현재 교단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보면 활용보다는 통제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규 제정과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지침과 보호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통제가 아니라 적정 수준의 통제 하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맞춤형 교화를 통해 교화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5.5. 사회참여 교화

5.5.1.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구 및 활동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높아져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담론과 키워드를 2015년 제70 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에 주목하여 찾아 볼 수 있다. '제생의세'와 '불공'이라는 교단의 가치실현이 범인류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세계-국가-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설정과 방향을 함께 고민할 때 효과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단의 핵심가치와 전략 방향 역시, 이와 보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전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국성천, 2020, 5.6)





[왼쪽 그림은 가톨릭의 새로운 경제모델 연구 모임 Economy of Francesco의 홈페이지]

[오른쪽 그림은 달라이라마가 참여한 이타심 기반의 경제학 담론 서적 표지]

생명윤리, 환경, 인권, 평화 분야의 교단내 전문가집단과 활동가들을 교단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여 수위단회는 연구분야에서, 교정원은 활동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종교성에 바탕한 보편적 사회 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대중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갈 것을 제안한다.

5.5.2. 봉공훈련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봉공회의 활동은 다시 한번 진가를 드러냈다. 교회현장에서 필요한 마스크를 신속하게 제공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지역감염이 급격한 확산세에 놓여 있던 대구경북지역에 들어가 교구와의 협력하에 밥차를 원만히 운영하였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썼던 유공인들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공도자 송배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수위단원 설문, 2020.05.06).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일부 교무님들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집중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단에서 직접교화에 비해 봉공활동 등을 통한 간접적 사회교화에 대한 관심의 비중은 그 중요도를 고려할 때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교단의 비전을 다시 상기해 보면, 원불교는 교도들만을 교화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일체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할 때 직접 교화에 보다 많이 힘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조금씩 사회교화를 위한 관심과 투자를 늘여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 방향은 봉공활동을 일로써만 여길 것이 아니라 봉공활동 참여자를 교법으로 훈련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일이다. 정부에서 손이 미치지 못한 사업분야를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을 동참시켜 체계적으로 기획하면 정부지원금을 통한 고용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사회봉공활동의 분야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과 훈련과 사회교화를 병행하는 비전을 세우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5.5.3. 타종교와 네트워크 형성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의 시기는 동척사업의 차원에서 타종교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종교간의 만남이 교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동선을 추구하는 분야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만남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종교 본연의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난구호와 사회적 약자보호의 분야에서 교세확장이 목적이 아닌 사회적 고통을 줄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타종교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동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5.5.4.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우리 교단은 타종단에 비해 선구적으로 북한교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정인성 교무님의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취임은 그러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은 결과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북한도 예외 없이 의료와 경제분야에서 타격을 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에서도 대북 의료지원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시도할지 민간을 통해 할지 방침이 아직 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물품 지원 등에 관해 교단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하여 정부에 제안할 적절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5.6. 영육쌍전

현재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당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 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사례를 모아보았다.

장기적으로는 자력양성과 자리이타의 원리에 기반한 교당과 기관의 자립경제 운영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자력양성이란 교화 교육 자선 각각의 기관이 외부적 교단 산업에 의지하지 않고 각각의 활동에서 가치를 창조하고 제공함으로써 재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구차원에서 원불교의 교도들 사이에 경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적인 교류가 꼭 금전적인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어떠한 플랫폼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재능과 물품이 교환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기획은 사회참여교화에서 제안했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연구와 연관된 것으로 사회에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원불교의 영육쌍전 모델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사례>

정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전라북도	...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	장기저리융자 긴급자금 지원 저신용자 금융비용 절감 고용유지 지원 확진자방문 피해 지원 방역지원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	카드수수료 지원 저금리 특례 고용유지지원금 확진자방문피해 지원 공공요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행정행위 유예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장기채 지원	장기저리융자 긴급자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일반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필품지원		
사회보험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			
기타		착한임대인 지원 전통시장 지원 영세 여행업체 지원금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착한임대인 지원 여행관광업 특별지원	

6. 나가는 말

본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빚어진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단의 방향설정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제약된 시간과 그에 따른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는 본 연구소 또는 교정원의 후속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교단은 개인적 차원의 마음공부와 보은실천 뿐만 아니라 사회불공의 차원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생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문명의 전환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때 뜻있는 교도와 비교도들이 함께 원불교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우리 원불교가 주세교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에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교단이 되기를 염원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20.4.5). 키신저 "코로나 대유행, 세계질서 영원히 바꿀 것". 검색일 5월 8일, 2020년.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51445001

김경일. (2020.04.30). [코로나19 신인류시대] 코로나19 이후 행복의 척도, 이렇게 바뀐다. 검색일 5월 3일, 2020년,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6873>

김경일. [포스트 코로나] "대박시대 가고 완판의 시대로". (2020년 5월 6일). 검색일 5월 7일, 2020년.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9104>

김태우. (2020.04.24).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종교평화운동. (2020년 4월 24일). 검색일 4월 25일, 2020년, 출처 원불교신문:

<http://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15>

뉴스공장. (2020.04.20). [4/20] 정세현, 윤건영, 박시영, 이상일, 이재갑, 류밀희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O5z5ph2Jmyo&t=13s>

동아일보. (2020.04.07). "다시 회사로"… IT업계, 재택근무 속속 해제. 검색일 5월 10일, 2020년. 출처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6/100529605/1>

동아일보. (2020.04.09). '확진자 0명' 북한[횡설수설/박종현]. 검색일 5월 10일, 2020년. 출처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9/100567073/1>

매일경제. (2020.03.16). 재택근무 10만명 시대 천태만상 | "아침에 지옥철 안 타니 삶의 질 껑충"…재택근무? 재택감옥! 주 80시간 근무. 검색일 5월 10일, 2020년. 출처 매일경제: <http://vip.mk.co.kr/news/view/21/20/1776440.html>

매일경제. (2020.04.12). 경제 제재에 코로나까지 '이중고' 북한, 경제계획 '하향조정'. 검색일 05년 10일 2020년.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382304/>

매일경제. (2020.04.29). '리쇼어링' 시작됐다…한국엔 절호의 기회. (2020년 4월 29일). 검색일 5월 8일, 2020년.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4/441831/>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 전파력 높지만 치명률은 0.3%에 불과. (2020년 2월 1일). 검색일 5월 9일, 2020년. 출처: 메디게이트뉴스: <https://www.medigatenews.com/news/2909228581>

미국질병통제센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vid-data/covidview/index.html>

법륜스님.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를 예견해 본다면". (2020년 4월 25일) 검색일 4월 26일, 2020년, 출처 정토회: <https://www.jungto.org/pomnyun/view/82580>

- 보건복지부. (2016).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http://nih.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tag=&act=view&list_no=128379
- 사이언스타임즈. (2020.04.2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는? 검색일 5월 1일, 2020년, 출처: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D%8F%AC%EC%8A%A4%ED%8A%B8-%EC%BD%94%EB%A1%9C%EB%82%98-%EC%8B%9C%EB%8C%80%EC%9D%98-%ED%82%A4%EC%9B%8C%EB%93%9C%EB%8A%94/>
- 안광석. (2020.05.08). Science of COVID-19.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최종현학술원-중앙일보 공동주최 Webinar (Online Conference). 출처:
<https://www.cheys.org/Event/Event.aspx>
- 연합뉴스. (2020년 4월 27일). 베를린 지하철서 한국 유학생 부부, 인종차별·폭력 피해. 검색일 5월 8일, 2020년.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7024800082>
- 원불교맨하탄교당. (2020). Online Practice. 검색일 4월 26일, 2020년, 출처:
<https://wonbuddhismnyc.org/online-practice/>
- 원불교신문. 유튜브 실시간 법회로 청년교화 활기. (2020년 4월 22일). 검색일 5월 3일, 2020년, 출처 원불교신문: <http://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86>
- 이재열. (2020). 코로나 사태가 사회·가치·정치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최종현학술원-중앙일보 공동주최 Webinar (Online Conference). 출처:
<https://www.cheys.org/Event/Event.aspx>
- 이코노텔링. (2020.03.12). 코로나 방역에 정보통신기술 맹활약. 검색일 05.10, 2020. 출처 이코노텔링: <http://www.econotelli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2>
- 장하준. (2020.04.10). "1929년 같은 대공황..돈 쓸어 해고 막아야". 검색일 5월 4일, 2020년,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26020>
- 정혜신. (2020.04.29). [코로나블루] 정혜신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검색일 5월 4일, 2020년,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801>
- 중앙일보. (2020.02.18). "코로나 치명률 낮다고 안심? 독감보다 20~30배 위험". 검색일 5월 9일, 2020년.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09251>
- 중앙일보. (2020.04.05). "코로나19, 대공황 수준 경제 위기...세계 질서 영원히 바꿔놓을 것". 검색일 5월 9일, 2020년.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09251>
- 중앙일보. (2020.04.19). 학부모 "초등생들 쟁기려니 정신없어, 내가 개학했나". 검색일 5월 10일, 2020년.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863>
- 중앙일보. (2020.04.26). 스페인 독감 뚫고 솟은 원불교 "코로나 사태가 준 큰 깨달음". 검색일 4월 26일, 2020년,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59991>

중앙일보. (2020.05.10). 文 "경제 전시상황…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추진"[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 검색일 5월 10일, 2020년,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72870>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란? (2020년 4월 2일) 검색일 5월 5일, 2020년, 출처:

<http://ncov.mohw.go.kr/baroView.do>

최강석. (2020). 바이러스 쇼크.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최인철. (2020.05.08). 코로나 사태가 사회·가치·정치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최종현학술원-중앙일보 공동주최 Webinar (Online Conference). 출처:

<https://www.cheey.org/Event/Event.aspx>

최재천. (2020.04.07). "바이러스사태 이대로면 3년에 한번꼴". 검색일 5월 10일, 2020년,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22814>

한겨레신문. 코로나가 종교의 위기를 앞당겼다. (2020년 5월 7일) 검색일 5월 9일, 2020년.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well/news/944039.html>

한국일보. 프란치스코 교황 "코로나19는 기후 위기에 대한 자연의 대응". (2020년 4월 9일) 검색일 5월 8일, 2020년. 출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091576762853>

홍기빈. (2020.04.21). [코로나19 신인류시대] 참았던 소비욕망 분출하자? 그 시대는 끝났다. 검색일 4월 26일, 2020년,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1227>

홍석현. (2020.05.08). 환영사. 최종현학술원-중앙일보 공동주최 Webinar (Online Conference)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fUC4it9pDMI&t=8692s>

홍윤철. (2020). 팬데믹:바이러스의 습격,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서울: 포르체.

Gates, B. (2020, April 23). The first modern pandemic. GatesNotes.

<https://www.gatesnotes.com/Health/Pandemic-Innovation>

Harari., Y. N. (2020, March 20).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Retrieved from <https://amp.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KBS 뉴스. (2020.04.22). 방역 당국 "코로나19 대부분 면역 없어 2차 유행 가능성 높다고 판단". 검색일 4월 22일, 2020년, 출처 KBS 뉴스: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0386>

Kim, J. (2020.05.08). Science of COVID-19(1).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그리고 미래. 최종현학술원-중앙일보 공동주최 Webinar (Online Conference).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fUC4it9pDMI&t=8692s>

불임. 수위단원 설문 결과

1) 교법적 메시지

‘코로나19 재난 현상에 대해 어떠한 교법적 메시지를 교단 내외에 전하고 싶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수위단원의 응답과 종법사님의 중앙일보(2020.04.26) 인터뷰 기사 중 코로나 관련 메시지를 키워드별로 뎁어서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정신개벽과 훈련]

- 스페인 독감을 극복하고 일어선 교단 창립사를 이번에 돌아보며 많은 걸 생각했다. 지금도 다들 앞만 보며 달려가지 않나. 코로나 사태가 지구촌 사람들이 크게 한번 멈추고, 자신의 삶을 크게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종법사님, 중앙일보 2020.04.26)
- 개교표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야 할 절실한 때
- 개교의 동기를 깊이 성찰하고 우리 모두는 조금 더 아끼고 덜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인간의 본래모습을 회복
-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①정신문명의 사회화는 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기질변화와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일원교법은 실생활 속에서 도덕과 규범을 훈련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세계(은혜) 자각]

- 코로나만큼 세상이 하나임을 즉각적으로 보여준 일이 있었나. 한국 사람이 미국의 확진자 수를 걱정하지 않나. 미국 사람이 유럽의 확진자를 걱정하지 않나.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 왕래가 끊기니까,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지 않나.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임을 자각시킨다.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한다. (종법사님, 중앙일보 2020.04.26)
- 지구촌은 이미 하나의 세상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법문들을 소개.
-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하나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만 방역을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질병이 생기면 우리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비단 코로나 19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도 이에 견주어 함께 돌아보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났다.

- 온 생명들은 하나이며 그 존재는 은혜라는 일원상 진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 진리에 눈을 뜨고 인류가 한 가족임을 알아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데 합력하길 기원.
-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 동포은의 중요성
- 천지보은과 동포보은은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명 그 자체임을 알아야 한다.
- 사은 윤리가 드러나도록 해야 함. 이 시대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간, 국가간 사은 윤리를 벗어 날 수가 없는 세계가 되었다. 이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임을 자각하게 해야 함.

[사은 윤리 실천]

-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인해, 그동안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놓아버린 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천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짐과 함께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천지가 우리에게 복주고, 벌을 주는 권능이 있음을 깨달아서 자연을 위한 생활을 해야 한다.
- 사은윤리의 실천 ①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과학과 도학의 병진,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공존을 위한 윤리강령이다. - 천지개벽 사상 ②사은사상은 천지은 뿐만 아니라 법률은에 대한 관계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 마크 샬러교수(벤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大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규범과 의식이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은 보건, 의료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사람들은 스스로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었다.
- 사은에 대한 지은보은의 윤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 물량주의 자본주의 매몰된 사은배은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아울러 세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영육쌍전]

- 영육쌍전의 교리를 통해 영육이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병든사회와 그 치료법과 정신세력의 확장을 하는 영성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원 마다 이러한 영성 훈련 장소로 프로그램을 운영.

[공동체 윤리와 사요]

- 공동체 윤리와 규범을 사요의 실천으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공생공존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 따라서 자리이타의 정신과 사요의 평등정신이 세계평화로 낙원세계로 나아가는 길임이 분명해졌다

[기타]

- 대종사님의 전망과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음.
-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 본과 말을 생각하여, 근본을 바루면 말은 그에 따라움을 느꼈고, 일을 진행할 때 조금이라도 사사로움이 들어가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의 국격도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 만일, 총선에 승리하기 위하여 코로나 전파자 수를 속여 발표하거나,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아 수치를 줄였다면 이런 안정세는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2) 교단운영

질문:

-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시 교단의 재난 대응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 그 외 코로나19의 영향과 관련하여 교단운영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대책위원회]

- 환경-질병대책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현재 운영 중인 환경단체, 봉공 단체의 외연확장이나 새로운 조직이 필요해짐.)
- 이에 교단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은혜심기운동 본부에 전문가들로 구성한 질병재난 구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대책위원회에 관련분야의 전문인을 포함해야한다.
- 재난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백서/매뉴얼]

- 대책위원회가 해체되면 반드시 “백서”를 발간한다.
- 이번 일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후 대응체계를 모색하시길~
- 대책위원회 구성에서 활동에 이르는 매뉴얼 마련
- 종교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재난에 미리 대비해야 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 당국이 말하기 전에 불교에서 석탄일을 한 달 미루는 것처럼 재난 대응에 대한 협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백서/매뉴얼 관련 내용]

- 사실에 입각하여 대응을 해 나간다.(가짜 뉴스에 현혹되면 안됨.)
- 연령대별, 각자의 건강 상태별, 지역별 대응 수준이 각각 달라야 한다.
- 교리에 입각한 기도문 생성, 법문 활용 등으로 심리적 안정과 유대를 강화해 가야 한다.
- 활동 홍보 ①위원회의 분과에서 각 지역의 활동이 대중에게 노출되어 교회에 영향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한다. ②재난 상황이 종료되면 활동 유공인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도자 승배의 정신이 교단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중앙의 통합적 관리와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교단관리는 중앙에서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이뤄가고, 지역교회는 지역에서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디지털 행정]

- 교단 운영부터 디지털화가 되어야 한다. 즉 교회 교육 복지 문화 산업 등 각 분야 마다 먼저 디지털화가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 디지털 공문서 확대나 교무 훈련 전에 어떤 내용을 연마해 오기, 교무 공동 강연 듣기, 칼럼 공유 등.
- 교단운영 : 화상통화를 잘 활용

[기타]

- 이번 재난에 잘 대응에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원불교는 빠르게 대처를 잘 했다고 봄.
- 바이러스 등 전염병이 반복되는 기간이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재가 전문인 활동확대 ①교단의 각 분야에 재가 전문인이 활동 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②사회적 트렌드의 변화에 기술적인 대응 전략 수립 등에 참여
- 교단적 과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 마련 ①교단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단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태도와 공의정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②미래의 지도자는 과학이 중시되고 의료지식이 고려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 시대의 변화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급속화 될 것이다. 교회란 단순히 어떤 한 부분만으로 성장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교회의 하락을 가져왔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교단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주로 특위나 위원회 갖은 일시적 조직을 통해 해왔다 하지만 시대는 가변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미래 계획은 한 번 정한 계획으로 진행해간다 그것도 재대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었다.

3) 교화방향

질문: 코로나 19 이후로 변화할 교화 환경에서 교단은 어떻게 교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화정체성]

- 이럴 때 일 수록 대종사님 이하 역대 스승님들의 경륜에 바탕하여 근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봄.
- 양과 크기와 몇 사람의 뛰어남보다 소수이고 작을 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모두가 함께 본질에 충실하여 공심을 잃지 않고 서로 감사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교화단과 훈련]

- 교화단교화 및 문답감정 중심으로 전환
- 교화단조직 즉 소규모조직을 통해 마음공부(훈련)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교당은 교당내왕시 주의공부가 이루어져서 교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좋겠다.
- 4. 법회운영 방안 연구: 훈련과 문답중심으로의 전환 고민
- 교도 교화단의 활성화에 초점. 교당에서 일요일에 하는 교화단도 좋지만 7~8명이 한 팀이 되어 10인을 만들어 가는 교화단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교화단별 특성화를 갖춰 그 가운데 공부하고 문답 감정 해오가 될 수 있도록 확장해 가자.
- 심지어는 전체가 모이는 법회도 한 달에 한 번만 보고 매주 또는 상시로 단별로 돌아가면서 좌선 교리공부 문답감정 등 구체적인 훈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법회 출석 수 점검도 필요하지만 교화단 활동, 1주일 내 교무가 어떤 순교로 교도들을 만나고 있는지, 교도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상담하고 풀어주는지 등 이제는 포괄적 교화보다는 세부적으로 개별화된 교화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소규모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 소그룹 교화활동 강화
- 교화방향 : 교화단조직과 마음공부(훈련)
- 온·오프라인 교화의 기본은 교화단과 훈련으로 강화해 가야 한다고 봄.

- 법회운영 방식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설교방식 등을 문답감정 등의 방식으로 전환

[영성 훈련]

- 아울러 세계경제가 어려울수록 수출을 주 수입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이에 국민들의 삶 또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과 수행을 통해 평화와 안심을 찾게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도적인 종교를 거부할 것이다. 제도 종교시대 막을 내렸다. 이제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야한다. 사람들은 제도화된 종교를 외면한다(길희성 교수) 이미 사구사회는 제도적 종교인 교회는 박물관이나 음악당이 된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이미 비종교인이 종교인을 넘어섰다. 특히 이번 일부 종교가 보여준 비도덕적인 모습에서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럴수록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필요하다. 다만 원불교도 제도적 종교화가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기복을 넘어서 일원상의 신앙과 수행이라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기본에 충실 하는 교육과 교화 ① 교역자의 삶이 사회 구성원들의 영성계발과 공동체의 가치실현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계발
- 사회적 통찰과 교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발 -훈련, 문답, 영성계발 등
- 대상별 수준별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신천지로 인해 종교가 추락했다. 위기는 기회라고 앞으로 종교는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실생활을 더욱 돌보이게 하는 영향력이 있음을 깨우치게 하는 종교쇄신 운동, 원불교는 생활 종교이다는 점을 피력.

[사이버/방송 교화 활성화]

- 대면중심 교화에서 다양한 비대면 교화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온라인을 통한 훈련에 투자해야한다
- 선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그 숫자에 한계가 있다. 유튜브에 명상을 하거나 명상음악을 듣거나 하는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의 좌선법이나 교리를 유튜브에 올리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해도 몇십 또는 몇백명이 듣지만 잘 만든 동영상은 수천만명이 들을 수 있다.
- 사이버교당교화 활성화: 노마드 개성교당과 유사한 형태의 교당운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인주의 성향이 가속화되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
- 사이버 교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고

- 유투브나 원 포털에 휴대폰에서 활용 가능한 컨텐츠를 다양하게 다량 생산해 내가야 한다.
- 각 방송사들의 컨텐츠 생성의 세분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드라마 한편을 통으로 다시 보기 형태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면, 각 신(＃)마다 쪼개어 포털에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해 주는 맞춤형인 것이다. 이와 같은 홍보 전략을 활용해 보자.
- 원음방송에서도 갖가지 교회 문화 설법 강연 등의 컨텐츠가 생성이 되고 있다. 이러한 컨텐츠를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오픈 해야 한다.(컨텐츠 비용은 문화사업비 명목으로 지금해야 함. 재원 마련은 각 교당에서 문화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교화정책 계발: 노마드 교당
- 교화콘텐츠 온라인화(신입교도 훈련. 재가교역자교육프로그램 등)

[지역별 교화]

- 지역별(교구별)교화 콘텐츠 계발 강화: 비대면이 강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교화콘텐츠 계발 지원
- 교무 1인이 근무하는 교당이 많다는 점을 인식, 교구별 상황 공유 및 교구 교도교화에 맞는 컨텐츠 개발도 쉬지 말아야 한다.(예-시내지역에서는 낮에 공원에 모여 멍 때리기 대회, 밤에는 달빛건기 대회 등 개 교당 교회에 머물지 말고, 시내 교당이 연합하여 할 수 있는 소박한 프로그램부터 진행 해 나가면서 시내 교도들부터 하나라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
- 지역별 출가 교화단회의 강화 및 교구 운영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인력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교법 사회화]

- 민도도 높아졌고 깨친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교당 안에서 교도 중심의 교법 해석과 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한 교법의 실행을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 바르고 진실된 종교로서의 이미지
-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종교로서의 이미지
- 세상을 내가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상은 스스로 바뀌어 간다는 깨침을 얻어야 합니다. 제생의세라는 단어에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며 우리는 힘 닿는 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①교법을 개인화, 사회화하기 위한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②지역별, 특성화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AR/VR/유튜브 등
- 각 지역별 시내 교당이 연합해 사회 이슈를 선점하거나,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행사를 미리 해 나가는 것도 교법 사회화의 일환이 될 것이다. 현재는 개교당 주의라 시너지 효과가 나지도 않고, 행사 자체를 시도해 보는 것도 어렵다.
- 인류가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활동 지원 및 활동가 양성으로 교단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 NGO 활동 지원.
- 교단 외적- 교법 사회화로 외연확장. 이를 위해 각 교구의 시내 교당들 교도들이 힘을 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 한다. 또한 교구는 행정 업무도 중요하지만, 교화활성 업무에도 치중해야 한다.

[기타]

- 교당헌공금 방식의 전환(헌공봉투와 계좌병행)
- 교당 급지별 교화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급지 상황에 따라 디지털에 익숙한 교당, 교도 연령대별 차이가 심한 교당 등 다양할 것임.)
- 신앙적 측면과 수행적 측면의 교화 매뉴얼과 컨텐츠가 제작되어야 한다.
- 교법이나 스승님들께서는 하나의 세계, 한 울안 한 이치 등을 표방하고 계시고 외쳐 주셨으나 과연 우리 교단 운영은 이러한 교법을 어떻게 잘 실현해 내고 있는가? 점검부터 해 보아야 한다.
- 교당은 지역사회 내에서 쉼터, 명상센터, 또 하나의 어르신 경로당, 카페 등으로 오픈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공유공간의 장소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
- 실생활에서 사은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 되어야 한다.(예/ 플래시 봄, 철리지 운동, 마스크 운동처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들 개발)
- 10인 1단 조직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단 조직은 단장이 9명을 관리하고 또 그 단원이 또 9명, 이런 식은 옛 방식이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조직은 일하는 조직은 됩니다. 팀, 과, 부, 국, 본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교화단은 깨침과 그 깨침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한 사람의 강연을 수십만명이 듣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교역자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공동체 교화, 양성평등, 교역자 용금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역자의 헌신이 보람으로 자리할 수 있는 교단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전무출신 정신의 재조명
- 전무출신 훈련을 통한 교법정신 재점검